

## 食糧資源開發輸入의 含蓄性

金 忠 實

慶北大學校 專任講師

- I. 序 論
- II. 資源開發輸入의 意義
- III. 食糧資源 開發輸入의 事例와 成果
- IV. 國內食糧資源開發의 政策意志 近況과 食糧資源 開發 可能性
- V. 結言 : 食糧資源開發輸入의 含蓄性

### I. 序 論

國際資源市場이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資源賦存量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의 立場에서는 安定成長에 필요한 必須資源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政策의 基本課題로 삼고 있다.

따라서 資源確保方法도 單純輸入方式에서 長期購買契約 방식과 開發輸入내지 開發加工輸入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自主的인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人間生存의 基本인 食생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立場을 고려하면서 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食糧輸入物量을 보다 安定하게 확보할 수 있는 方法으로 食糧開發輸入이 主張되고 있으며 정부나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상당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것은 이미 國內農業開發(投資)事業效果의

限界點을 인식하고 그 돌파구를 海外에서 찾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國民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을 중심으로 한 食糧資源産業을 보는 觀點과 직결된다고 본다.

資本의 不足이 成長의 主要 制約要因으로 작용되어 오고 있는 우리 農業의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資源開發輸入의 效果가 食糧開發輸入의 경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食糧開發輸入의 含蓄의 意味와 그 代案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食糧安保의 측면에서 가장 安定적인 國民食糧의 確保方法은 自國의 統治權內에서 國內增産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枯渴性資源을 開發輸入하듯이 再生可能資源인 食糧도 統治權밖의 海外農場開發을 통한 開發輸入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농업은 경제적 意味를 상실하였고 國內食糧資源開發을 위한 政策的 意志와 노력은 최선의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投資의 期待效果는 과연 限界에 달해 있는가?

그래서 生産 위주의 海外食糧資源開發輸入은 國民經濟的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인가?

이와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進술한 本研究

목적에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본다.

資源開發輸入의 일반적 의의와 연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食糧資源開發輸入의 필요성과 期待效果를 검토하고 國內外的 事例分析을 통해 그 현실을 파악한다. 그리고 國內食糧資源開發 投資의 限界性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經濟的 基礎資料로서 本產業育成에 관한 지난 4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에 나타난 政策意志와 財政, 金融, 價格條件, 擔稅率 등과 같은 主要變數들의 動態를 점검하고 그리고 國內農業 및 그 開發事業의 產業聯關效果와 農業的 기준에서 본 比較優位性의 정도를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해본다.

단, 이와같은 研究에서 흔히 關係적으로 소개되는 國內食糧供給方法上的 當面課題는 既存研究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問題意識下에서 本課題에 접근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인정 또는 입증되는 食糧經濟에 관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전제함으로써 食糧經濟問題를 巨視的인 國民經濟의 안목에서 접근하여 흔히 부분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범하기 쉬운 편견을 줄이고자 한다.

(1) 食糧貿易에 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經濟理論이나 그 應用能力이 발전된 선진제국의 일관된 含蓄的 思考의 패턴은 農業을 基礎產業으로써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金忠實 1983, pp. 184-188).

(2) 1970년대 이후 수차에 걸친 穀物輸出國의 供給中斷 행위로 인해 食糧危機 意識이 고조되면서 각국의 食糧政策은 食糧安保와 인플레이션 수단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고 세계적 불황과 더불어 農產物貿易政策의 대립은 격렬해지고 있다(金忠實 1983, p.6).

(3) 國內의 食糧自給能力은 급속한 減少趨勢에 있으며 최근 自給率로 볼 때 國民食生活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4) 輸出國이 食糧資源을 戰略的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諸條件面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食糧輸入國圈의 平均水準보다 훨씬 취약한 입장에 있다(金忠實1983, pp. 174-184).

(5) 단순히, 農業保護論의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比較優位論의原理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食糧政策에도 國際經濟情勢의 변화라는 대세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巨視的인 國家經濟의 안목에서 長期戰略과 短期措置의 조화가 요구된다.

## II. 資源開發輸入의 意義

### 1. 開發輸入의 概念 및 類型

資源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데는 통상의 貿易에 의한 單純輸入과 開發輸入에 의한 방법이 있다. 開發輸入이란, 「선진국의 技術과 資本을 低開發國에 提供함으로써 先進國의 수입에 적합한 商品輸出을 조성시키며 當該 生産物을 수입함으로써 生産에 투입된 先進國의 資本을 返濟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高麗大學校 貿易研究所).

환언하면 「外國의 資源主權領域에 賦存된 天然資源의 개발사업에 投融資하고 이윤이나 상환금을 資源產物로 決濟케 함으로써 資源入手를 보장하는 方法」이며 開發活動은 天然資源의 가치를 顯在化하여 직접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探查, 採取, 選鑛 등등 광업활동을 위주로 하고 그 對象資源은 開發과 輸入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서 枯渴性 鑛物을 主宗으로 한다(KIEI 1978, p. 73).

개발수입의 방법은 韓國 또는 日本의 論者에 따라 다소 用語가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은 大

同小異하다(KIEI).

投資型的 구분은 投資의 비중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支配投資型이란, 經營權을 장악하여 利潤을 독과점하려는 경우이며 協力投資型은 現地企業 또는 國際企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투자하고 參加投資型은 少額資金을 부담하고 配當利潤과 長期輸入特權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이다.

## 2. 開發輸入의 必要性 및 要件

70년대 이후, 國際資源情勢를 概觀하면 枯渴資源을 둘러싸고 資源生産國의 資源 내셔널리즘과 國際資本과의 應戰과 妥協이 展開되고, 한편으로 資源消費國의 防衛的 自主開發의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資源需給體制形成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資源供給의 硬直化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원확보가 不安定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重要資源에 대한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資源確保方式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며 현재의 單純輸入方式에서 長期購買契約 및 開發輸入方式에서 長期購買契約 및 開發輸入方式을 통하여 資源保有國과의 協調속에 보다 安定, 低廉하게 資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요청된다. 그러나 資源開發輸入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면서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長期間에 걸친 大規模의 資本調達이 요구된다. 특정자원을 개발하여 수입하기까지는 豫備調査와 探查, 그리고 開發可能性을 검토한 후 開發하고 그것을 수송하기까지에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둘째, 필요한 資源開發에 적합한 技術과 技能人力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원되는 技術과 기능인력이 자원보유국의 기존수준을 능가할 수 있어서 경제성 면에서나 자원보유국과

의 協力關係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投資의 높은 危險負擔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投資가 自國의 統治圈 밖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생소한 投資環境에서 겪는 技術的, 經濟的 危險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勢力關係, 體制의 變化, 外交路線의 相衝 및 資源 내셔널리즘의 작용 등 政治, 外交의 危險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資源이 어떤 나라에 偏在하고 있는 경우 그 確保와 開發에 있어서 그 나라의 企業이나 그 나라의 宗主國의 企業이 유리하며 資源開發地域을 政治的, 經濟的으로 支配하고 있다던가 혹은 강한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國家 또는 企業이 그 資源支配에 優位性을 갖게 되며 投資의 危險負擔도 낮다.

넷째, 現地適應能力이 開發輸入 成敗의 關鍵이 된다. 國家主權이 다른 現地國의 領土內에서 企業活動을 전개하려면 現地の 정치, 경제, 사회의 諸般與件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자원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요구의 充足可能性은 극히 중요하다. 특히 開發利益의 配分과 管理에 대한合議過程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資源保有國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資源開發研究所 1979, p46).

(1) 開發資源의 現地加工度를 높여 現地 附加價值 向上

(2) 地域開發을 위한 下部構造의 정비

(3) 그 나라에서의 利益은 그 나라를 위해 利益의 再投資를 요구한다.

(4) 現地人の 經營參加와 國內資材의 優先調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開發進行後에도 紛爭의 대상이 되는 것은 成果配分價格 및 產出量의 결정, 법률 문제 등이며 投資國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資源保有國에 의한 開發企業의 接受나 國有化이다.

### 3. 開發輸入의 機能 및 期待效果

單純輸入과의 비교에서 開發輸入의 長點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필요한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먼저 占有할 수 있으므로 物量의 안정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細分하여 本源的 機能과 附隨的 機能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本源的 機能은 投融資國으로 하여금 필요한 資源의 物量을 自主的이고 長期的, 安定的으로 확보케 하고 費用面에서 良質의 資源을 廉價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資源供給을 制限 또는 中斷할 경우, 국방이나 국민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므로 자원조달의 自主성과 長期安定性を 開發輸入을 통하여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부수적 기능으로는 附帶輸出과 現地の 경제, 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고 國際的 關係를 돈독히 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이상의 機能에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論者에 따라 다소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具千 1978, pp.160-166).

즉 經濟的 效果로서 開發利潤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廉價供給, 協商能力의 확보, 국내 物價安定에 기여, 附帶輸出效果 그리고 國內關聯企業의 國際競爭力 提高 등을 들 수 있으며 國際政治的 效果로서 資源保有國과의 協力強化 또는 資源民族主義와의 調和로 정치적 협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安保의 측면에서 必要物量에 대한 자주적 안정적, 확보의 本源的 機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諸機能과 효과는 그 자원의 종류마다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점과 아울러 人間行動과 諸與件 변화의 다양성

을 함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Ⅲ. 食糧資源開發輸入의 事例와 成果

### 1. 食糧資源開發輸入의 必要性 및 期待效果

여러 가지 主要資源이 있겠지만 人類生存의 필수불가결한 자원을 順位로 들라면 맨 먼저 食糧資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식품에 대한 수요가 高級化, 다양화되고 量的으로 크게 증대됨에 따라 食糧輸入物量이 급증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국제곡물시장의 不安定으로 몇 차례 物量確保難과 穀物價格의 급등이란 고통을 경험해 왔다. 이와 같은 상태의 國際資源情勢下에서 주로 枯渴性資源, 즉 鑛物 또는 化石에너지 자원에 시도되고 있는 先進國 개발 수입방식을 食糧資源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일련의 조치가 있어 왔다. 資源開發輸入에 관한 개념과 관련하여 食糧개발수입을 定義하면, 「國內生産으로 不足한 농산물을 海外에서 보다 廉價로 안정되게 物量을 확보하기 위해 資本과 技術 및 人力을 投資 또는 傭자의 형식으로 投入하여 生産한 產出物 또는 그 加工品을 輸入하는 자원조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발수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必要農產物의 所要物量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직접수입의 경우보다 支配的인 구매자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去來協商能力을 伸長시켜 저렴한 價格으로 輸入할 수 있다.

(3) 부대수출효과로서 농기구 등 농사관계 資

材를 輸出할 수 있다.

(4) 국내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5) 資源保有國과의 協力強化 또는 資源民族主義와의 調和로 國際政治的 協助基盤을 구축할 수 있다.

(6) 농산물 수입선의 분산과 必要物量의 自主的 確保를 통해 食糧安保를 강화한다.

이상과 같이 食糧資源의 經濟的, 安保的 機能을 開發輸入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2. 食糧資源開發輸入 事例概要

### 가. 韓國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옥수수 농장 설립을 취소한 후 처음으로 美國 워싱턴州 파스코(Pasco) 地域에 옥수수 農場進出을 시도해 보았다. 本事業의 推進經緯는 1980년 10월 10일 美國 유에스 토바코(U.S Tobacco)社로부터 옥수수 재배 合作投資提案이 있는 후 다음해 3월 9~25일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本計劃의 基本內容을 보면 이쪽과 유에스 토바코(U.S Tobacco)社가 投資比率 50 : 50으로 共同出資하여 약 4만 町步의 농장에 50만 톤 규모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生産物을 韓國이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計劃投資額은 2억 8,374만 달러로 農場經營專門家를 파견하여 試驗農場에서 試驗栽培과 經營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에이커당 4.5톤 정도의 생산이면 開發輸入의 경제성이 안정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平均生産性은 3.2톤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2,600ha와 2,800ha의 시험재배를 거쳤으며 1次年度의 試驗栽培結

果는 적자를 나타낸다. 이러한 推進期間을 거치면서 投資額 중 현지농장구입비와 경영비 調達方法上的의 문제와 관련하여 投資의 타당성을 확정하지 못한 채 最終決定을 지연시켜 왔다.

농업생산은 공업의 경우와는 달리 自然環境에 대한 依存度가 극히 높으며 營農技術 또한 상대적으로 우수한 美國地域의 기존경영인들보다 반드시 앞선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농업생산의 경우는 기상, 토양, 병충해의 管理方法에 대한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며, 生産方法 또한 資本集約的方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근면성의 요소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미 시험재배에서도 경험했듯이 그 지역의 生産性을 상대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合作會社의 財務構造나 營農能力도 문제가 되겠지만 農場經營費에서 차지하는 地代는 큰 比重을 차지한다. 따라서 自營하는 경우 農地를 高價로 구입하는가 低價로 구입하는가는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主要要因이 될 수도 있으므로 農場購入時期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美國의 경우, 70년대 후반에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美國의 農地價格이 급등하는 가운데, 투기적인 영향도 미쳐 農地投資가 급증했으며, 그 결과 80년대초의 農業不況속에서 農場의 부채가 증대하고 파산농장이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開發輸入을 위한 現地農場購入과 그와 관계된 일련의 조치는 時期的으로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濠洲 西部地域의 進出을 계획하고 있다. 本計劃을 위한 예비조사보고에 의하면 이計劃의 主要目標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된다.

(1) 安保的 차원에서 農業資源基地를 확보한다.

(2) 濠洲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 강화한다.

다.

(3) 이민번호를 지속적으로開發하고 열대진 조지의 農業技術을 개발한다.

이러한 目標下에 開發計劃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위바 平原 일부와 케이프, 스프링 地域의 4천 ha 를 개발하고 다음 단계로 위바, 칼튼, 키프 平原의 4만 6천ha, 이것이 단계적으로 성공할 경우, 다음은 핏츠로이江 流域의 30만 ha 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農産物開發輸入에서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 즉 기존 개발경지에 비해 개발조건이 불리하여 開發單價가 높고, 大規模 機械營農과 大規模經營의 經驗이 없으므로 經營 위험이 높은 점이 지적된다. 또한 自然依存도가 높은 農業生産의 특성이 주요한 문제점이 된다. 열대농업 및 田作灌溉農業에 대한 無經驗者인 外國人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나. 日本의 경우<sup>1)</sup>

1) 日本의 食糧資源 開發輸入 概況

日本의 食糧資源 開發輸入事業은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기업진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197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不況과 함께 격감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1977년 현재 業種別 企業進出 件數를 보면 총 427건 중 畜蠶 및 穀物과 農業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農業이 98건이고, 그중 畜産이 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次生産보다는 農林水産關聯 製造業이 1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表 1>.

<sup>1)</sup> 日本의 農産物開發輸入에 관한 내용은, ①有松晃의 報告書와 ②農水産部, 韓國飼料協會, 「海外飼料穀物の 개발 수입에 대한 現地 妥當性 調査報告」, 1982. ③KREI 資料를 참조.

表 1 業種別 企業進出 件數

業 種 別	企業進出件數	構 成 比(%)
農 業	98	22.9
穀 物 生 産	2	0.5
穀 物 以 外 耕 種	34	8.0
畜 産	37	8.7
酪 農	4	0.9
蠶 業	4	0.9
農 業, 서 비 스	17	4.0
林 業	75	17.6
漁 業·水 産 養 殖 業	89	20.8
農 林 水 産 關 聯 製 造 業	151	35.4
農 林 水 産 關 聯 部 · 水 産 業	14	3.3
計	427	100.0

資料 : KREI, 食糧經濟研究室

이들 企業의 海外進出動機는 資源確保와 資源을 日本으로 輸出하려는 것이 主要動機였고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現地 또는 제 3國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企業도 많았다. 地域別 企業進出 상황을 보면, 1977년 현존하는 427건의 사업이 47개국에 진출하고 있다. 東南아시아에 190건,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각각 84건과 65건이 진출하고 있으며, 國別로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順으로 55건, 50건, 30건으로 나타났다<表 2>.

海外資源開發 民間企業進出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擔當機關으로 國際協力事業團을 1974년 발족시켜,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2 地域別 企業進出件數(1977年 現在)

地 域 別	該 當 國	進 出 件 數	構 成 比 (%)
동 아 시 아	한국, 대만	57	13.3
동남아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의 6개국	190	44.5
남 아 시 아	인도, 스리랑카	6	1.4
中 近 東	이란	3	0.7
아 프 리 카	탄자니아, 우간다의 12개국	22	5.2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의 10개국	84	19.7
오 세 아 니 아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	65	15.2
계		427	100.0

資料 : <表 1>과 같음.

○企業의 要請에 따른 技術協力  
 ○無償資金 協力  
 ○青年海外協力活動  
 ○海外移民  
 ○民間企業進出에 대한 資金協力, 技術協力

政府 입장에서 지원 하는 目的은 海外進出기업이 現地에 정착하여 안정되게 사업활동을 하게 하며, 특히 海外進出企業 中 農林業開發, 下部構造, 整備事業, 敎育, 의료 등 社會基礎部門 開發事業의 투자는 위험성과 收益性이 낮으나 經濟協力度는 매우 크므로 국가간 경제협력증대라는 차원에서 이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日本의 食糧資源 開發輸入의 主要事例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기업이 本事業에 진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중 主要事例로 三井會社의 옥수수 개발수입의 경우와 다야 이또(Daya Itoh)會社의 옥수수 開發輸入 事例를 소개하고 나머지 주요 사례를 表로 정리하기로 한다 <表 3>.

(1) 三井會社의 옥수수 개발수입의 경우  
 1968년 인도네시아의 고스고로 會社와 三井會

社가 49 : 51의 資本比率로 총자본 규모는 475만 달러, 5,000ha의 農場規模의 法人을 설립했다. 1969~76년에 총21,200톤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24,400톤을 現地에서 구입하여 그중 43,730톤을 日本 또는 其他地域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會社運營狀況을 요약하면 심한 적자운영으로 1969~75년간에 누적적자액이 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三井物產側은 赤字로 인하여 이 事業體를 처분 또는 철수하려고 하여도 그동안 兩國政府간의 제반관계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문제는 政府次元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들 事業이 失敗한 原因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농장운영과 관련하여 도로, 교량, 관개시설 및 전기시설 등의 下部構造投資가 큰 부담이 되었고, 作物生産過程에서 現地 병충해의 피해와 산짐승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現地勞務者 또는 주민과의 不和와 怠業으로 인한 노동력 確保가 곤란한 점, 또한 농지구입에 있어서 土地所有主人 現地農民들과의 보상문제가 지적되었다.

(2) 다야 이또(Daya Itoh)會社의 옥수수 개발

表 3 日本의 農產物 開發輸入의 主要事例概要

商社名	가 네 마 스	東 棉	佳 友	三 井	三 菱	丸 紅
開發品目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수수, 肉牛	수 수	麻, 녹두	米穀, 옥수수
對 象 國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호 주	호 주	인도네시아	브 라 질
始作年度	1968	1970	1970	1971	1973	1975
運營方式	民間 Base로 50 : 50투자에 의한 現地法人	民間 Base로 日本 51 : 49의 現地法人	民間 Base에 의한 50 : 50 現地法人	上 同	上 同	丸紅가 100% 投資에 의한 現地法人
規 模	3,000ha	200ha	50,000ha	10,000ha	10,000ha	14,000ha
經 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7~69년에 걸쳐 옥수수 52千%에 일수출</li> <li>• 戰爭에 의하여 農場이 戰場化 되어 會社不存 狀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當初目標와는 달리 타피오카, 落花生, 高추 생산으로 轉換</li> <li>• '75年 生産活動 中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病蟲害, 降雨量 不足 등으로 生産不振</li> <li>• 1974年 會社解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氣候不備, 鳥害, 金利, 肥料 價格의 上昇 등으로 大幅赤字</li> <li>• 清算管理人에 의한 清算整理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病蟲害 熱帶農業技術補不足, 土地所有權 問題 등으로 大幅赤字</li> <li>• 印尼政府가 引受運營 交涉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莫大한 赤字 累積으로 正當的인 運營 困難</li> </ul>

수입의 경우

대상국은 인도네시아이며 1971년 인도네시아의 다야(Daya)會社와 비슷한 수준의 規模이다. 운영상황을 요약하면, 이 경우도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下部構造 시설투자가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지적된다. 農場進入路와 주변 農村部落으로 통하는 간이도로 개설, 그리고 現地住民과 노무자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進路소 建物 寄附 및 기타 援助活動에 따른 諸費用이 主要因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경우 외에도 대부분이 企業收支面에서 赤字運營 또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으며, 그 主要因은 과중한 下部構造 投資負擔, 병충해, 氣候不順, 技術不足, 現地住民 및 근로자와의 不和, 其他 附隨經費 過多, 그리고 現地の 戰爭 등으로 나타난다.

### 3) 食糧資源開發輸入의 期待效果와 限界

1970년대에는 세계적 不況과 함께 不景氣로 인해 海外投融資 餘力의 不足과 그간 농사개발에 투자한 성과에서 실패 또는 저조한 사례가 속출하여 농업투자에 대한 警戒心이 고조되었고 海外進出件數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0년대에는 食糧生産基地의 확대 방향을 中國의 만주 지역으로 돌려 大豆개발을 확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中共과의 農業協力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試行差誤를 거치면서 계속되는 開發輸入에 거는 期待效果는 다음과 같다.

먼저 相對國인 개발도상국에 주는 效果는 해당 商品의 국제경쟁조직의 強化와 供給量을 증대시키고, 加工 및 資材産業과 農業發展을 가져오며, 外貨收入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日本 自國에 대한 效果는 日本과의 무역역조

에 따른 不平의 해소와 實質的인 片貿易是正方法이 되며 低開發國 원조에 대한 國際的 要請에 부응하는 효과, 그리고 食糧 및 林産資源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食糧의 安保의 측면에서 國內農産物生産과의 調和問題를 고려해야 하며 開途國의 輸入量에 크게 의존할 수도 없는 限界를 인식하게 된다.

## IV. 國內食糧資源開發의 政策意志 近況과 食糧資源開發可能性

### 1. 食糧資源開發 主要關聯變數 概觀

食糧資源對策에는 國際經濟情勢의 變化라는 大勢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巨視經濟的 안목에서 長期戰略과 短期措置의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農産物 自由貿易擴大의 國際的, 國內的 압력을 經濟政策決定에 있어서 主要變數로 수용한다면,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國內農業의 實態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資源의 完全雇傭과 完全流動性의 前提를 수용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전제는 특정 시기에 파악된 한 산업의 比較優位性 여부를 靜態的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農業開發에 대한 政策的 관심이 그동안 어떻게 집중되어 왔는지 몇 가지 내용으

表 4 經濟開發 5個年 計劃 期間別 一次 産業 投資計劃

구 분	연평균성장율 %	투자 계획 10억 원	전산업 비중 %
제 1 차	5.7	55.4	17.2
제 2 차	5.0	159.9	16.3
제 3 차	4.5	648.5	13.6
제 4 차	4.0	1979.0	10.4

註: 各計劃期間別 投資計劃額은 각각 1961年 價格, 1965年 價格, 1970年 價格, 1975年 價格 基準임.

資料: 各 期間別 「經濟開發 5個年計劃」.



表 5 농업부문 개발비 집행비중추이

단위: %

구분	농림업개발비 (A)	농림업취업인구 (B)	A/B
一次經濟開發計劃	1962	27.2 (7.4)	—
	1963	18.4 (5.0)	60.6(4644)
	1964	18.2 (4.5)	59.7(4655)
	1965	23.2 (6.9)	56.1(4603)
	1966	22.7 (14.2)	55.7(4695)
	평균	21.9 (7.6)	58.0(4649)
二次經濟開發計劃	1967	16.9 (13.3)	52.7(4598)
	1968	22.3 (26.3)	50.0(4582)
	1969	25.0 (44.0)	49.8(4687)
	1970	21.2 (39.2)	49.5(4826)
	1971	21.7 (46.2)	47.3(4758)
	평균	21.4 (33.8)	49.8(4690)
三次經濟開發計劃	1972	17.8 (52.9)	48.4(5110)
	1973	23.7 (58.8)	47.2(5260)
	1974	16.9*(66.5)	45.8(5304)
	1975	21.6(144.6)	43.3(5123)
	1976	17.8(152.3)	42.4(5323)
	평균	19.6(95.0)	45.4(5224)
四次經濟開發計劃	1977	18.4(187.9)	39.9(5161)
	1978	14.6(181.6)	36.5(4920)
	1979	12.2(261.8)	34.0(4642)
	1980	14.5(371.7)	32.3(4433)
	1981	14.0**(443.6)	32.5(4560)
	평균	14.7(289.3)	35.0(4743)
1982	19.1(504.9)	30.0(4324)	63.7

註 1) ( )는 액수를 나타냄. (단위: 10억원)  
 2) \*: 비료제정력자보진분 424억원 삭계  
 3)\*\*: 냉해농가지원분 910억원 삭계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재무부, 결산개요

로 간략하게 그 일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 1960년대부터 5차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나타난 産業別 投資計劃에서 農林 水産部門의 比重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왔다. 食糧生産業으로서 農水産部門의 投資가 全體 投資規模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次計劃에서 5次計劃으로 경과되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와 더불어 國內의 食糧自給率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政策意志의 결과로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表 4).

그동안 開發費 項目에서 農林業部門 開發費

執行比重을 보면 年度別로 다소 증감이 있지만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에는 전체 개발비에서 農林業部門에 平均 21.9%가 투입되었으나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期間에는 平均 14.7%가 투입되었다. 그 比重面에서 3차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거치는 동안 1次期間에 비해 4次期間에는 68% 水準으로 감소되었다. 農林業開發費 比重을 産業別 就業人口 比重과 관련하여 보면, 취업인구 비중에 대한 상대적인 農業開發費의 비중은 第1次計劃期間 平均 35.8%에서 第4次計劃期間 平均 42% 수준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다(表 5). 거의 1次産業 중심의 1960년대 전반에 비해 農業就業人口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그로 인해 農林業部門 就業人口當 開發費의 比重이 증가한 것은 都農間의 所得分配배지는 삶의 質的 改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4次經濟開發 計劃期間에는 平均 42%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所得分配面이나 삶의 質的 측면에서 1次産業 從事者의 상대적 취약성배지는 不利性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人口 増加를 감안한다면 農林業開發費 집행 비중의 현저한 감소는 食糧生産에 대한 政策의 育成意志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그동안 農業 遲滯型 成長戰略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不均衡成長論의 戰略에서 지체된 農業部門을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조정하여 靑年 成長의 促進劑로 하여 왔는지가 의문이다. 참고로 농업부문 主要 政策事業에는 食糧増産, 農業機械化, 農業用水開發, 農業基盤整理, 大單位農業綜合開發, 流通構造改善, 畜産事業 農家 所得増大事業 기타 行政 및 農村指導事業으로

대별된다(韓國開發研究院 1981).

다음은 年度別 예금은행의 貸出金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農業資金의 需給狀態는 과거로부터 超過需要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制度金融의 供給能力 制限으로 高利의 私金融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착취와 부채의 순환에서 지난 1961년에는 「農漁村高利債整理法」이 마련되는 經驗조차 가져 왔다. 그 이후에는 農業生産規模 擴大, 生産方法의 變化, 그리고 商業的 營農化에 따라 그 需要增大를 가속시켜 왔으며, 貸出 年金利 약 3할 이상의 私金融과 그 절반 이하 수준의 制度金融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制度金融圈의 貸出은 엄청난 할인율의 補助金이 포함된 것이며, 그것이 生産金融일 때는 生産費 補助가 된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所得分配과 직결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補助된 金融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産業은 그만큼 保護有成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난 1960년대 이후 産業別 預金銀行 貸出金比率를 보면 주로 食糧生産業體인 農林水産部門이 一次經濟開發 5個年期間(1962~66) 平均 26%에서 2次, 3次, 4次期間에는 平均 14.7%, 12.2%, 9.8%로 각각 나타났고 5次期間의 1982~83년 平均値는 8.3%로 더욱 감소하고 있다(表 6).

이러한 制度金融圈의 貸出比率이 食糧生産部門에서 계속 감소하는 것은 그 需要가 감소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農家負債의 절반 가량이 私債로 나타나고 있다(農水産部). 이것을 部門別 生産價値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 보면 農林水産部門이 經濟開發計劃期別로 1次에서 4次까지 각각 平均 7.1%, 12%, 13.1%, 15.9%, 그리고 5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期間 중 1982~83년 平均 22%로서 生産價値當 制度金融의 比率은 漸

表 6 연도별 예금은행농업부문 대출금 비중

단위: 10억원

구분	예금은행대출금		B/A	C	D	C/D
	전산업(A)	농림수산부문(B)				
1962	44.8	18.4	41.1%	14.1%	11.7%	120.5%
1963	46.8	16.9	36.1	7.7	10.5	73.3
1964	49.9	18.1	36.3	5.4	8.3	65.1
1965	67.0	19.5	29.1	6.4	9.5	67.4
1966	95.6	22.5	23.5	6.3	10.7	58.9
평균	60.8	19.08	26.0	7.1	10.0	77.0
1967	167.4	29.3	17.5	7.6	15.4	49.4
1968	315.9	43.2	13.7	9.2	23.0	40.0
1969	540.4	69.1	12.8	11.6	30.2	38.4
1970	682.1	100.1	14.7	13.9	28.9	48.1
1971	865.0	126.0	14.6	14.0	29.9	46.8
평균	514.1	73.54	14.7	12.0	27.1	44.5
1972	1125.6	160.3	14.2	14.6	31.6	46.2
1973	1492.8	201.7	13.5	15.2	31.9	47.7
1974	2303.9	262.2	11.4	14.1	36.2	39.0
1975	2751.6	303.3	11.0	12.2	32.2	37.9
1976	3522.1	383.8	10.9	11.8	29.6	39.9
평균	2239.2	262.3	12.2	13.1	41.2	42.1
1977	4451.3	508.4	11.4	12.9	27.8	46.4
1978	6302.5	658.4	10.5	13.6	29.1	46.7
1979	8584.6	816.8	9.5	14.2	30.5	46.6
1980	11655.7	1032.7	8.9	19.2	33.6	57.1
1981	15189.4	1338.2	8.8	18.1	36.1	50.1
평균	9236.6	870.9	9.8	15.9	32.4	49.4
1982	19169.1	1530.2	8.0	19.9	40.0	49.8
1983	22870.9	1955.9	8.6	23.9	41.7	57.3
평균	21020.0	1742.8	8.3	22.0	40.7	53.4

註 C : (농림수산부문 대출금) ÷ (농림수산부문 GNP)  
 D : (비농림수산부문 대출금) ÷ (비농림수산부문 GNP)  
 資料: 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

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非農林水産業部門의 경우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總生産價値當 制度金融 利用率은 農林水産部門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보조된 金利의 利用面에서 農業部門 就業者는 불리하며 食糧産業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 왔다고 보겠다.

지금까지 食糧산업 개발에 대한 政府投資 및 制度金融에 관한 政策的 意志를 검토해 보았으

나 보다 중요한 것은 農產物 交易條件이다.

價格의 機能面에서 볼 때 개개인의 生産意慾과 특정 生産物의 増産可能性은 交易條件과 그 生産性的의 패리티율에 거의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農業生産의 특수성으로 인해 政策意志를 포함한 그밖의 人爲的 生産條件이 동일하더라도 物的生産性的의 증가속도가 農業이 느린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食糧生産에 특별한 支援이 없는 한 所得分配面에서 交易條件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의 경우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고 거의 10년간은 農產物의 전체 交易條件이 점점 악화되어 왔다. 米作 중심의 穀物生産이 主宗이 되어 왔던 한국적 영농에서 穀物에 대한 交易條件은 더욱 불리해져 왔다. 특히 農產物 生産에 국한하여 보면 穀物 販賣價格과 農業生産資材(農業用品) 購入價格간의 交易條件은 가장 불리하게 나타났다(表7).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과동을 겪으면서 食糧増産이 보다 강조되고 당분간 農產物 交易條件이 改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다시 악화되었다. 특히 農業用品 購入價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純農業生産 交易條件(農產物 販賣價格/農業用品購入價格)은 지금까지 그 값이 1을 넘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은 단순한 交易條件의 상태에다 生産性的의 패리티율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食糧事情과 문제시되는 農業 및 農村社會 現象 그리고 農民의 입장을 經濟的인 관점에서 가히 직감할 수 있다.

所得誘因도 生産意慾을 制約하는 主要因이 되지만 租稅負擔의 정도도 主要變數가 된다. 特定産業을 보호 육성하는 데는 그 産業擔稅率의 調節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都農間의 租稅公課金 負擔率을 비교해 보면 都市勤勞者 家口의 負擔率이 農家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에서 점점 그 격차가 좁혀져 1979년 현재로는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된 것으로 나타났다(金基成1981).

지금까지 食糧資源産業育成과 관련된 主要事項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한 마디로 政府投資, 金融, 農產物交易條件, 擔稅率 등에서 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이래 國內 食糧資源開發에 政策意志는 매우 나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農業의 比較優位性 및 開發效果 近況

지난 4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에서 보여진 政策意志는 특정산업 육성의 主要 尺度로 볼 수 있는 開發投資, 金融支援, 交易條件, 그리고 租稅公課金 負擔率 등과 같은 주요 變數에 그대로 반영되어 農業을 포함한 食糧産業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어 왔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성장해 온 農業은 어느 特定時期에서 比較優位性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되겠지만, 現實 國內食糧資源産業의 比較優位性的의 상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가지 목적에서 農產

表 7 年度別 農產物交易條件 (1980=10)

구분	판매가격		구입가격		가격패리티율(%)			
	총지수(A)	곡물(B)	총지수(C)	농업용품(D)	A/C	B/C	B/D	A/D
1965	7.7	6.9	8.1	9.2	95.1	85.2	75.0	83.7
1966	8.1	7.2	9.0	10.3	90.0	80.0	67.0	78.6
1968	10.9	9.2	12.3	15.0	88.6	74.8	61.3	72.7
1970	14.7	12.6	15.6	17.9	94.2	80.8	70.4	82.1
1973	24.1	21.4	22.3	28.3	108.1	96.0	75.6	85.2
1975	39.2	38.3	37.1	39.5	105.7	103.2	97.0	99.2
1978	74.0	62.2	70.5	91.5	105.0	88.2	68.0	80.9
19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2	137.1	122.4	144.6	165.0	94.8	84.6	74.2	83.1

資料: 農協中央會

물의 比較優位性 여부를 계산해 보았으므로 本節에서는 이들 既存資料를 이용하기로 한다.

比較優位性的의 尺度로서 國內資源生産費(domestic resource cost)를 계산하여 그것으로 특정품목의 比較優位 또는 國際競爭力 여부를 판단하고 흔히 수입개방품목 선정의 기준으로 간주하려 든다.

그러나 DRC 計算에 있어서 基準價格으로 國際價格計算 및 그 적용상의 문제와 國家經濟單位에서 DRC를 적용할 경우 DRC 計算에 포함되는 費用項目의 포함 범위,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時點과 적용 대상품목의 國家經濟의 性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農業生産의 경우 식량안보론적 중요성이나 전체적인 산업연관 효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投入物 중 固定要素의 性格을 갖는 投入物과 農業勞動力의 他用途轉用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機會費用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DRC를 계산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國民經濟의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79년 이후 3년간의 凶作으로 단순히 농업성장의 부진이 國民經濟에 미친 영향을 경험했다. 序論에서 전제한 것처럼 과거로부터 각국에서 農業은 각종 형태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것을 일일이 포착하여 國際價格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러한 諸側面과 農業生産要素의 流動性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農業部門의 DRC를 계산하여 적용했을 때는 國內農業은 포기해야 하며, 따라서 農業生産資源은 遊休狀態가 되고, 農業生産의 고용효과를 포함한 산업연관효과를 포기해야 되는 모순된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

DRC 計算에서 이러한 모순을 어느 정도 배제하는 방법으로 純國內資源生産費(net domestic

resource cost)를 적용하게 된다. 즉, 국가경제적 안목에서 國內農業資源活用을 감안하여 총생산비에서 토지용역비와 노임을 제거하여 中間物財費를 純國內資源費用으로 본 경우가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산출결과를 基礎資料의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과 計算方法에 따라 差異가 있겠으나 NDRC 係數는 일부 축산부문을 제외하면 아직도 國內增産의 可能性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表 8).

다음은 農水産部門의 産業聯關效果의 근황을 既存資料를 이용하여 주요 내용만 검토하기로 한다.

産業聯關表를 資料로 이용하는 産業聯關分析은 그 기법이 갖는 기본적인 약점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 技法을 이용한 分析結果는 특정 효과의 방향이나 효과에 대한 部門間的의 우열 및 정도의 輕重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表 8 主要 農産物의 DRC係數 및 NDRC係數

品 目	D.R.C 係數		N.D.R.C 係數
	A	B	
쌀	2.02	1.17	0.47
밀	2.00	1.63	0.62
옥수수	3.98	2.39	0.34
대두	3.38	1.93	0.54
쇠고기	1.86	3.06	2.90
돼지고기	0.50	1.02	0.87
탈지분유	—	10.41	9.76
대맥	2.14	—	—
고추	—	1.60	0.65
마늘	—	0.59	0.37
참깨	—	3.10	1.06
땅콩	—	1.88	0.65

1) A항은 KDI 산출근거 (KDI, 「主要農業政策改善方案」, 1982)에 따른 것이며, B항은 「DRC=총생산비-토지용역비」로 하여 산출한 農水産部 資料임.

2) 「NDRC=총생산비-토지용역비-노임비」로 하여 산출한 경우의 農水産部 資料임.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主要農業政策改善方案, 1982, 農水産部,

食糧資源產業은 他產業에 비해 中間財 投入이 적고 附加價値가 높은 편이므로 生産誘發效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産業을 9分하였을 때 生産誘發係數는 耕種部門이 1.52, 農林水産部門과 이들과 관련되는 産業 즉 도정, 제분, 도살 등의 農業聯關産業과 食品工業 農業資材供給産業의 生産誘發係數의 單純平均値는 2.27로서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部門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表 9).

한편 就業誘發係數를 보면 農林業部門과 그 聯關産業이 他產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즉 農畜産物 最終需要가 100만원 상당량이 증가하면 약 0.6~0.7人的 就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表 9).

國民經濟는 成長 못지않게 노동인구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단순노동력을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보면 食糧資源産業의 雇傭機能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食糧資源開發을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 開發후의 효과도 크겠지만 開發過程에 개입되는 主要産業의 生産效果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개발에 개입되는 주요 산업, 農業公共事業, 農機械産業, 農業 서비스, 農藥産業, 肥料産業에 대한 最終需要가 國內農業開發投資로 발생할 경우,

表 9 部門別 生産誘發 係數 및 就業誘發 係數

		생산유발계수 (例合) : $(1-A)^{-1}$	취업유발계수 : $A^1(1-A^0)^{-1}$
경	종	1.5176	0.6234
축	산	2.6213	0.7600
수	산	2.2645	0.1944
임	업	1.2981	0.7080
농업	연관산업	2.7544	0.5325
식품	공업	2.6393	0.2658
농업	자재공급산업	2.8079	0.1817
광	공업	3.2833	0.1492
사회간접,	기타서비스	2.2828	0.2244

資料: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年, 農業中心의 産業聯關表」, 1983.

全産業을 27개 部門으로 분류할 때 그 生産誘發係數는 2.11, 3.00, 1.88, 3.26, 2.97과 같이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참고로 工產品과 社會間接資本 기타 서비스部門은 각각 2.98, 2.18이다. 즉 新投資에 따른 最終需要의 2~3배 가량의 乘數의 效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농업개발의 直接效果는 대부분 鑛工業部門과 지금 심각한 不況을 겪고 있는 建設을 포함한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部門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李廷湧 1983, pp.52-53).

이상에서, 國內食糧資源産業의 比較優位性과 産業聯關 效果를 주로 農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食糧資源産業이 불리한 입장에서 20여 년이 경과되었지만 生産性面이나 雇傭效果를 포함한 産業聯關效果의 經濟的 측면에서 國民經濟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國內食糧資源 開發을 통한 增産의 妥當性이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V. 結言: 食糧資源開發輸入의 含蓄性

지금까지 食糧資源 供給方法上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어 온 食糧資源開發輸入의 必要性과 期待效果 그리고 國內外의 事例分析을 통해 그 虛實을 논해 보았다. 아울러 國內農業의 限界性을 海外農業開發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經濟的 基礎資料로서 農業을 중심으로 한 食糧資源産業의 比較優位性 및 主要産業聯關效果의 近況, 그리고 4次에 걸친 經濟開發 計劃을 거치는 동안 本産業育成에 관한 政策意志 및 主要變數들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검토된 내용을 기초로 食糧資源開發輸入이 갖는 含蓄의 의미와 本開發輸入의 基本方向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食糧資源은 開發輸入의 主對象이 되고 있는 鑛物 및 에너지 資源과 같은 枯渴性資源(exhaustible resource)이 아니고 再生可能資源(renewable resource)이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食糧은 天賦의 이용가능한 매장량이 없어도 人爲의 努力으로 增産이 가능하며 또한 人間生存의 必須不可缺의 資源이다. 따라서 國際競爭力이 DRC 基準에서 약하긴 하지만, NDRC(純國內資源費用) 기준에서는 國內生産物의 優位性이 인정되고, 國內食糧資源開發이 國民經濟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 生産基盤의 外延的 또는 內延的 擴大의 可能性이 높다는 점은 굳이 食糧安保의 重要性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經濟的 측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主要農産物 生産性增大的 가능성도 政策意志의 여하에 따라 매우 고무적임을 보여 주었다(朱龍宰 1982 pp.106-127).

지금 韓國의 입장에서 食糧資源開發輸入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機能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요한 食糧을 安定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附隨的 機能으로 지적되는 附帶輸出을 포함한 기타 사항들을 개발 대상국의 요구와 거의 경합되고 때로는 不和의 요인이 되어 왔거나 주된 機能이 원만히 수행될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機能은 國際市場이 平常時나 非常時 어느 경우이든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며 實益을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平常時의 경우를 보면 交易相對國은 食糧輸入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國際食糧資源市場에서 物量確保面이나 價格條件面에서 일반수입

을 하는 경우보다 危險負擔이 크며 오히려 農産物 貿易自由化의 壓力으로 인한 무역마찰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非常時의 경우, 즉 食糧資源輸出國이 自國內의 需給量 및 價格調節에 관한 政策的 目的을 달성하려는 경우나 外交的 目的에서 食糧을 이용하는 경우는 開發輸入도 그 統制對象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외교적 조치(응징)의 당사국이든 아니든 그 波瀾效果를 피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이인철 1980, p.9).

그리고 生産 위주의 食糧資源開發輸入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은 國內外的 事例分析에서 처럼 대부분 그 효과는 저조하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食糧資源開發輸入은 월등한 영농기술적 우위성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불리한 價格條件에서 食糧수입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食糧을 구입해 오는 「先拂食糧輸入」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요약해 볼 수도 있다.

食糧開發輸入에 관한 基本方向을 모색하는 데는 日本의 經驗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 日本은 일차상품 생산 자체보다 그 加工 및 都小賣業 部門에 더 많은 진출을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 볼만하다. 1977년 현재 農水産加工 및 도소매업 부문에 전체 진출 427건 중 약 4할을, 그리고 곡물생산 부문은 약 0.5%에 그치고 있다.

(2) 日本은 개발수입의 효과를 필요자원 확보 그것보다 先무역에 따른 불평해소와 시장방안의 하나로서 또한 경제대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國際的 압력을 줄이는 效果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經濟動物이라는 評價 속에서 경제대국으로 成長한 日本이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의 戰略일 수도 있다. 비록

農産物生産의 個別 企業의 成果가 부진하여 그것을 政府가 支援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國內外的 입장을 동일한 시각에서 볼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와의 貿易相對國이 특정품목에 의한 심한 무역역조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소위 「協商下의 貿易政策」이란 상황하에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食糧資源 開發輸入의 妥當性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 반대이다.

食糧輸出國이 食糧을 工産物과 같은 차원에서 貿易自由化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對處가 難題인 상황하에서 오히려 이같은 생산 위주의 開發輸入을 스스로 하려 든다는 것은 再考의 價値가 있겠는가? 물론 부족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식량자원 개발수입이라는 방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方法上的 問題가 있다는 점이다. 必要品目에 대한 生産 위주의 식량개발 수입에서 우려되는 그밖의 모든 사항이 확실하더라도 기존 現地 營農人들의 技術을 능가하여 生産結果가 國際價格 보다 경쟁력이 앞서지 않고서는 經濟的 效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밖의 政治的 效果는 거의 一般輸入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國民食糧의 安定的 確保라는 課題를 해결하는데는 經濟的 側面, 食糧安보의 側面 그 어느 측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동시에 輸出立國의 基本路線에 위배되는 어떠한 해결책도 無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리해 본 食糧 開發輸入이 갖는 含蓄의 意味를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이 食糧供給 및 食糧자원 개발수입의 基本方向을 요약해 볼 수 있다.

(1) 食糧의 國內增産 方法이 比較優位性, 産

業聯關效果面에서 海外農場開發의 경우보다 國民經濟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安定的이며, 食糧安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經濟的 측면에서 開發投資의 期待效果가 높게 나타나므로 國內自給力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政策意志가 요구된다.

(2) 中長期的으로는 營農技術과 農業經營能力을 가진 자들의 自發的 移民을 장려하고 現地適應過程을 거쳐 自生能力을 갖춘 한국인 교포 營農團組織을 만들어 지도, 육성하여 그들의 生産物을 體系的으로 輸入하는 방법이 개발수입에 따른 危險負擔을 줄이고 期待效果를 보다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技術的 優位는 開發輸入의 基本要件임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또는 민간기업은 生産爲主의 開發輸入이 아니라 食糧資源의 加工 또는 流通部門爲主의 進出을 기한다.

(4) 정부 또는 민간기업 진출에 의한 개별수입은 農場投資를 小規模로 하여 그 主要機能 및 效果를 일반적인 機能 또는 效果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農業移民 한국인 교포의 영농지도 및 營農團組織의 指導, 育成의 중심점, 現地 穀物市場情報 蒐集센터, 국제 식량자원 유통업체 진출기지로서의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危險負擔이 큰 生産的 機能을 부수적인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끝으로 人間生存의 필수불가결한 食糧 문제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케인즈의 見解를 本稿의 結論에 添言하려 한다. “國家間的 經濟的 關係를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극소화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한다. 思想, 知識, 藝術, 歡待, 旅行 등은 그 성격상 국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財貨는 큰 무리와 불편이 없는 한 가능하면 國産品을 쓰도록 하자(Harrad 1972, p.526).

## 參 考 文 獻

- 具千晝, “海外農產物 開發輸入의 必要性和 推進方向,”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 國際經濟研究院, 「資源開發輸入의 理解와 實際(I): 基礎的 理解」, 1978.
- 金成勳, 「國際食糧經濟의 展望과 우리 農業의 對應」, 經濟科學審議會議, 1981.
- 金忠實, “食糧資源의 戰略的 利用條件의 適用可能性— 韓國의 경우,” 「農業經濟研究」第24輯, 韓國農業經濟學會, 1983.
- 金忠實(譯), 「OECD】諸國의 食糧政策」, 海外農業資料 2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OECD, *Food Policy*, 1981).
- 李仁哲(譯), 「食糧의 武器化는 가능한가」, 海外農業資料 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 資源開發研究所, 「海外資源開發 投資與件助成을 위한 基礎研究」, 1979.
- 朱龍宰外, 「長期食糧需給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 朱宗桓, “比較優位論의 適用限界; 韓國農業의 경우,” 「經濟學研究」, 第29輯, 韓國經濟學會, 1979.
- 許信行, 「貿易政策과 農業發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李廷湧, 「80年 農業中心의 產業聯關表」,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 「海外食糧資源確保方案」, 油印資料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8.
- 韓國動力資源研究所, 「海外資源開發研究」, 1983.
- 韓國開發研究院,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3.
- 村山純, “海外直接投資と日本經濟,” 日本長期信用銀行 調查月報, 1981.
- Harrod, R. F.,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Pelican Book, 1972.
- OECD, *Food Policy*, 1981.
- Randall, A., *Resource Economics-An Economic Approach to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Ohio; Grid publishing Inc., 1981.